

송중기 “빈센조는 못된 사람...악을 악으로 처단한 결말엔 만족”



드라마 '빈센조'에서 열연한 송중기.

“빈센조는 인생 캐릭터...가장 신나고 즐겁게 연기했기 때문” 영화 ‘승리호’ 이어 드라마도 흥행...다음 행보는 영화 ‘보고타’

“전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극약무도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처단해야 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tvN 주말드라마 '빈센조'에서 이탈리아 파피아 콘실리에리 까사노 빈센조로 변신했던 배우 송중기(35)는 악인들을 응징하는 빈센조의 활약이 통쾌하면서도 다소 잔인했다는 반응에 이같이 답했다.

3일 화상으로 만난 송중기는 “오히려 더 세계 나가게 되니 오히려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물론 드라마지만, 악을 많이 행한 캐릭터들을 캐릭터(의 방식)에 맞게 처단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센조가 ‘다크 히어로’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히어로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사에도 나오지만 빈센조는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기’다. 못된 사람이자 나쁜 사람”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런 캐릭터를 응원하게 된 것 자체가 슬프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리 만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중기는 이번에 외모도 일 처리도 완벽한 빈센조를 만화 캐릭터처럼 표현해내면서 호평받았다. 넷플릭스로 공개된 영화 ‘승리호’도 팬층은 반응을 끌어낸 데 이어 ‘빈센조’도 시청률 15%에 근접하면서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다.

송중기는 “2연속 흥행이라고 평가해주시니 감사하다”면서 “스스로 즐기면서 최선을 다했던 작품이라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빈센조’처럼 부담이 없었던 작품도 처음이다.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촬영하면서 여러 배우와 재밌게 잘 놀았다는 뜻”이라며 “금프러자 사람들과 함께한 에피소드가 많았던 만큼 외롭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호쾌한 액션 연기와 반전의 코믹 연기에 대해서도 힘들기보다는 재밌었다고 강조했다.

“액션이 많으면 보통 힘들지만, 이번에는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감정 위주로 액션을 만들어주셔서 대사와 액션은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연기할 수 있었죠. 오히려 굉장히 통쾌하고 재밌었어요. 코믹 연기는 작가님께서 써주신 대본을 잘 살리려고 했죠.”

잘 나가던 ‘빈센조’는 중간 중국 간접광고(PPL) 논란으로 잠시 압축을 만나기도 했다. 그 중 빈센조가 중국 브랜드의 비빔밥을 먹는 장면이 특히 문제가 됐다.

송중기는 이에 대해 “주연배우로서 PPL 부분은 같이 상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란을 부인할 수 없다. 주연 배우로서 실망한 분들께 사과드리는 게 맞다”면서 “외적인 논란이 생기면서 오히려 드라마의 내

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송중기는 흥차영 역의 전여빈과 로맨스 연기에 대해서도 “빈센조와 흥차영의 로맨스를 두고 찬성과, 반대 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본다”고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 내내 상대 배우인 전여빈에 대한 애정도 아낌없이 드러냈다.

그는 “저랑 연결된 캐릭터가 다양하지만 한 명을 꼽자면 무조건 전여빈 씨가 연기한 흥차영”이라며 “너무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다고 느꼈고 무엇보다 정이 많이 들어서 호흡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송중기는 시즌2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직 나온 얘기는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제 입장에서 감사한 얘기도. 빈센조는 제게 인생 캐릭터가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신나게 연기했거든요.”

이번 작품을 통해 첫 악역에 도전한 그는 “빈센조는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판타지적인 악역이라 다음에는 좀더 선배님께서 연기하신 최명호처럼 현실적인 악역을 해보고 싶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성공적인 복귀를 마친 송중기의 다음 행보는 영화 ‘보고타’ 촬영이다. 1990년대 콜롬비아에 이민을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보고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작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달 말부터 한국에서 ‘보고타’ 촬영을 시작할 것 같아요. 해외 촬영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주연 배우로서 어떻게든 작품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연합뉴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개국 25주년 ‘1996년 그후...’ 18일 방송

5·18 전두환 재판 관계자 소회 답아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이 올해로 개국 25주년을 맞아 제작한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1996년 그후, 다시 유죄’ (연출 김선근, 양복순)가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평화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다. 1년여 기획과 제작을 거쳐 완성한 이번 작품은 12·12

군사반란과 5·18무력진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6년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세기의 재판’에 참여했던 5월 관계자들을 발굴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소회를 담아냈다.

이번 다큐는 또,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화합이라는 미명아래 전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 이후 한국 현대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되짚었다. 무엇보다 ‘단죄’되지 못한 역사적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했다.

한편 이번 작품은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이 최초로 라디오와 유튜브를 접목한 이른바 ‘라티브’ 형태로 제작해 라디오에서 미처 담지 못한 인터뷰의 진한 여운과 감동을 영상으로 담아냄으로써 작품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66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 〈심사위원〉
- 홍경자 (전주지전대 교수)
- 황미경 (순천대 교수)
- 조성경 (전남과학대 교수)
- 박보윤 (호남신학대 교수)
- 서윤진 (광주교육대 교수)
- ◇초등부 1.2학년
- ▲최고상
- 3 전현경 (전주화산초2)
- ▲금상
- 12 오아란 (광주교대광주부설초2)
- 16 임지성 (광주서림초2)
- 28 이서연 (광주교대광주부설초2)
- 52 김리엘 (광주운암초2)
- ▲은상

- 7 김류아 (신암초2)
- 8 이서연 (운리초2)
- 9 김희서 (광주농성초2)
- 17 박하현 (광주송원초2)
- 19 정소윤 (문정초2)
- 31 정윤 (운전초2)
- 32 손지원 (광주삼육초2)
- 34 신재원 (상무초2)
- 36 김시연 (운전초2)
- 37 김가희 (불로초2)
- 48 김정원 (운전초2)
- 50 염다빈 (수완초2)
- 55 유희찬 (광주교대광주부설초2)
- ▲동상
- 10 김세경 (광주삼육초2)
- 13 박무진 (마지초2)

- 14 박시하 (하백초1)
- 20 이주현 (빛누리초2)
- 21 김시훈 (목포항도초2)
- 25 고준희 (치평초2)
- 27 고은서 (주월초2)
- 42 임정민 (불로초1)
-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 94 이서연 (한아름초6)
- ▲금상
- 1 황서연 (목포영산초6)
- 25 김재운 (일곡초6)
- 26 최은효 (군산월명초6)
- 47 조채희 (광주삼각초6)
- 53 한승민 (운전초6)

- 55 윤주안 (하백초6)
- 65 서은빈 (전주조촌초5)
- 82 김은찬 (전주화산초6)
- 87 임예준 (태봉초6)
- ▲은상
- 3 정소윤 (수완초6)
- 4 김서연 (목포부주초5)
- 7 김예린 (목포부주초5)
- 18 윤가연 (하백초6)
- 30 김가은 (광주교대광주부설초5)
- 41 이소흔 (빛누리초5)
- 42 김예린 (운전초6)
- 63 기정원 (광주송원초6)
- 70 최한별 (치평초5)
- 74 김주원 (광주송원초6)
- 77 김가연 (나주중앙초6)
- ▲동상
- 9 민예진 (목포신흥초5)

- 19 최유주 (불로초5)
- 23 이지혜 (태봉초6)
- 28 김소율 (하백초6)
- 33 구은율 (치평초5)
- 36 김소윤 (신창초6)
- 45 박지호 (신창초6)
- 60 박서운 (일동초5)
- 62 유재효 (조봉초6)
- ◇중등부 1.2학년
- ▲최고상
- 36 박가인 (목포애향중2)
- ▲금상
- 7 정현주 (일신중2)
- 14 송하영 (일신중2)
- 21 윤태강 (치평중2)
- 22 한동근 (송의중2)
- 45 이준범 (봉산중2)

- ▲은상
- 8 김가은 (상무중1)
- 11 손연우 (매성중1)
- 15 송민경 (일동중2)
- 37 유신호 (문성중1)
- 43 김다희 (광주경신중1)
- ▲동상
- 18 김해원 (금호중1)
- 19 조승호 (대촌중1)
- 24 최윤서 (용봉중1)
- 38 조하은 (광주경신중2)
- 39 김채운 (비야중2)
- 40 김윤아 (일신중2)
- 41 김채연 (목포옥암중2)
- 46 박수현 (광주경신중1)
- ◇중등부 3학년
- ▲금상

- 10 장은서 (수완중3)
- 15 황지원 (장성남중3)
- ▲은상
- 2 박하누리 (목포영흥중3)
- 8 김예지 (동아여자중3)
- 11 권대현 (오룡중3)
- 14 김태현 (진남중3)
- 20 문성현 (화순중3)
- ▲동상
- 3 홍지원 (진남중3)
- 4 김바른 (산정중3)
- 9 최희정 (목포애향중3)
- 12 김단영 (월계중3)
- 18 이하은 (삼계중3)
- 19 박예나 (전주예술중3)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해미패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

(주)K&J컴퍼니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테크, 신재생에너지 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

씨니헤어샵가발

나주시 성북동 4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전화예약 ☎ 010-3996-0489

In.ssalon_sia

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 062)233-1202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 (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대신청소전문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

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

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 (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새희망 직업소개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향시모집

☎ 062)531-5511, 010-6522-1524

드림케어슬루션

동구 금남로 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살)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